

# 「유효공선행록」의 형상화 방식과 작가의식 재론

박 일 용\*

## 1. 서론

조선시대 소설을 연구하면서 부딪히는 어려운 문제 가운데 하나가 작품의 표면에 등장하는 유가적 이념의 문제를 어떠한 각도에서 해석해야 할까 하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는 특히 17세기 후반 이후의 소설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15세기의 전기계 소설이나 그것의 흐름을 잇는 「주생전」, 「최척전」, 「운영전」 등 전기계 소설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그리 심각한 편은 아니다. 그런데, 17세기 후반 이후에 등장하는 소설들에서는 작품의 표면에 유가적 윤리 이념이 보다 강하게 드러난다. 이러한 현상은 판소리계 소설이나 영웅소설처럼 상대적으로 낮은 계층에 의해 향유된 작품들로부터 가문소설처럼 보다 높은 계층에 의해 향유된 소설에 이르기까지, 여러 소설 양식에 걸쳐 두루 나타난다.

그 가운데서도 가정소설이나 가문소설에는 그러한 경향성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것이 사대부 부녀층이라는 이들 작품의 주된 향유층의 의식과 관련된 것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간 가문소설, 또는 가정소설의 연구에서는 작품에 표방되는 이러한 유가 이념의 교훈성에

---

\* 홍익대 교수

초점을 맞추어 이들 소설이 교훈적 목적을 위해 창작 향유된 소설이라 해석하기도 하였다.<sup>1)</sup>

조선 후기 사회의 지배체제가 유가 이념을 바탕으로 하여 지탱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물론 이러한 연구 경향은 기본적으로는 타당성을 지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설 연구에서 이처럼 작품의 표면에 표방되는 유가 이념과 작품의 갈등구조 사이의 관계는 좀더 정밀하게 분석되어, 그것의 실제적 의미가 해석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지 않을 경우 대부분의 작품들이 유가적인 교훈을 제시하기 위해 창작된 것이라는 평면적 해석에 머무르기 쉬울 것이다. 더우기 그러한 위험은 유가 이념이 가장 두드러지게 표방되는 가정소설 또는 가문소설의 경우 더욱 클 것이다.

그런데,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유효공선행록」은 이들 가정소설 또는 가문소설 가운데에서도 유가적 윤리 이념 표출이 가장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작품에 속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은 그 분석의 결과가 자칫 예정된 결론에 도달할 가능성이 가장 큰 작품이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거꾸로 이 작품에 나타나는 유가 이념과 작품의 갈등구조 사이의 관계를 정밀히 추적하여 작품의 의미가 단순히 표면적으로 표방되는 유가 이념의 제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해석해 낸다면, 오히려 일반적으로 가정소설 또는 가문소설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선입견을 수정하기에 가장 적합한 작품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유효공선행록」에 대한 연구는 여타의 가문소설 작품에 비한다면 어느 정도 축적된 편이라 할 수 있다. 임치균은 「유씨삼대록」과의 연작 관계를 밝히는 한편, 작품의 전반적인 성격과 갈등구조의 거시적인 틀을 분석하여, 그것을 효 이념을 강화시키려는 사대부 의식의 표현이라 해석하였다.<sup>2)</sup> 송성욱은 이 작품을 「유씨삼대록」과 함께 분석하면서 이들 작품의 구조가 계후갈등을 통한 부권 확립의 과정을 드러내는 것이라 해석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의리 명분을 강조했던 산림들의 의식과 관련지우는 한편,

1) 극단적인 경우가 임형택 교수처럼 이들 작품을 '규방소설'이라는 명칭으로 부르는 견해라 할 수 있다.

2) 임치균, "유효공선행록 연구," 관악어문연구 14집, 1989.

이 작품의 작가층을 산림으로 추정하기도 하였다.<sup>3)</sup> 이들 연구는 작품의 표면에 표방된 유가 이념 그 자체를 작가의식의 차원에서 해석한 것이다.

한편, 이승복은 이 작품의 표면에 설정되고 있는 효우의 이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에 내포된 심층 의미를 해석하려 하였다. 작품의 표면에 설정된 효우의 이념이 가문 내에서는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지만, 대외적으로는 가문의 명예 회복과 유지 번영을 위해 기능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그리하여 이 작품이 가문의 사회적 평가를 회복하려는 타락한 훈벌의 의식을 반영하여 창작된 것이라 해석하였다.<sup>4)</sup>

이들 논의는 작품에 구현된 작가의식에 초점을 맞추어 작품을 분석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작가층의 성격을 추정한 것들이다. 비록 많은 양은 아니지만 이들 논의를 통해 「유효공선행록」의 개괄적인 성격은 밝혀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들 논의에서 「유효공선행록」에 투영된 작가의식을 해석하면서 해당 계층으로 사대부, 산림, 타락한 훈신 등으로 각기 상이한 해석이 제기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작품 해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임치균이나 송성옥은 작품의 표면에 강하게 드러나는 효우의 이념이 그것을 통해 가문의 창달을 꾀하려는 작가의식의 직접적인 표현으로 해석한 반면, 이승복은 그것의 표면적 의미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가문내적인 의미와 가문외적인 의미로 이원적인 의미를 해석하려 한 것이다. 작품의 표면에 설정된 이념의 의미를 어떠한 차원에서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가 쟁점으로 등장한 것이다.

「유효공선행록」 연구에서 부각된 이러한 문제점도 결국 앞에서 언급한 바 17세기 후반 이후의 소설 작품들에서 표방하고 있는 유가적 윤리 이념을 어떠한 관점에서 해석할 것인가 하는 문제의 연장에 놓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그간 진행된 「유효공선행록」의 연구에서 드러난 이러한 문제들을 염두에 두면서, 작품의 표면에 설정된 유가 이념과 그것을 구체적으로 구현해 내는 실제적 갈등 구조 사이의 관계를 추적하여, 「유효공선행록」의 형상화 방식을 살펴보기로 한다. 그리하여 그들 사이의 관계가 드러내는 현실적 의미 및 소설사적 의미를 해석해 보려고

3) 송성옥, “고소설에 나타난 부의 양상과 그 세계관,” 관악어문연구 15집, 1990.

4) 이승복, “유효공선행록에 나타난 효우의 의미와 작가의식,” 선청어문 19집, 1991.

한다. 이를 통해 「유효공선행록」의 의미 해석 뿐 아니라, 이를 통해 가문 소설의 표면에 드러나는 유가 이념의 소설적 의미를 새로운 각도에서 해석할 수 있는 실마리를 마련할 수 있으면 한다.<sup>5)</sup>

## 2. 虞舜 효행담과 「유효공선행록」

「유효공선행록」에는 등장인물의 대화나 서술자의 이야기 등에서 유연을 우선에 건주는 대목이 여러번 등장한다.<sup>6)</sup> 우선 효행담은 『맹자』의 「萬章章句上」, 그리고 『史記』의 「五帝本記」 이후 여러 史書 및 『小學』 등 유가적 교화용 전적에 거듭 수록되면서 유가 사회에서 효행의 선범으로 인식되어 왔다. 이러한 사정을 생각할 때 이미 제목에서 주인공 유연의 효행을 주제로 표방하고 있는 「유효공선행록」에서 주인공 유연의 효행을 우선의 효행에 건주는 것은 일견 당연한 것이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유효공선행록」의 경우는 이러한 일반적인 견증의 차원을 넘어 효행담의 여러 모티프, 그리고 구조의 측면에서까지 우선 효행담과 상당한

5) 본고의 분석 텍스트는 “김기동 편, 필사본 고소설 전집, 15, 16권, 아세아문화사, 1980.”이다. 이하 이 책의 인용시에는 “전집”으로 표기하기로 한다.

6) “일 공주는 더욱 각별 호날이 대순 이후 혼났 효조를 내신시라 었디 범인의게 비기 리오만은 슝름이른지 영모호미 안호로 김플 샅롬이오 밧고로 궁과호미 업서 (전집 15권 37면)

“대순이 우물과 집후회 불을 피호샤 중중네불격간호시니 이제 니르러 그 효성을 일코너니 만일 순오로써 부명을 한호여 죽오미 이신죽 었디 속히 순이라 호리오 이제 군이 대인의 죽이고조 호실니 업스디 폐당호를 붓고려 붕스호를 이다라 즈분필 스호려 호니”(전집 15권, 105면)

“궁이 크게 탄 왈 이도에 므옴 쓰기를 과도이 호여 중해 대호로디 고슈의 부조호 물 만나 우물의 궁글 뿌르며 불가온대 췌여 드러나미 이비를 두시고 탄금술호시니 네 이제 너명유 거술여 칼을 머무러 죽지아니코 칼을 지어 정을 퍼미 등화의 적덕을 추모호미로더 홀노 심너를 허비호미 탄금호시는 데 불담호고 도로혀 한해의 격은 뜻을 본바나 의 쓰기의 피토호미 잇고 우름이 현누 나기의 빗춘니”(전집 15권 435면)

“슈연이나 우순이 상의 죄를 사호샤 우비의 봉호시니 양이 었지 중화의 성덕을 추모치 아닛노요”(전집 16권 205면)

일치를 보인다. 이러한 점을 생각할 때 「유효공선행록」에 전개되는 유연의 효행담 구조를 우순 효행담의 구조와 비교하여 분석해 보면, 이 작품에 구현된 작가의식 그리고 형상화 방식의 심층적인 의미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조선시대 유가사회에서 이념의 핵심 교본으로 여겨진 『맹자 集註』와 『사기』에 나타나는 우순의 부자 및 형제 관계 기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우순의 아버지 고수는 후처를 얻어 아들 상을 낳았다.
- 2) 아버지 고수는 무도했고, 계모는 험담을 잘했고, 동생은 오만하였다.
- 3) 순은 효성이 지극하다는 소문으로 인해 요임금의 딸과 결혼하게 되고, 역산·뇌택·하빈에서 직분을 다하고 백성을 교화하여, 요임금으로부터 옷·거문고·창고 그리고 소와 양을 하사받았다.
- 4) 아버지는 순이 조금만 잘못해도 큰 벌을 주었으며 순을 죽이려 하였다. 예컨대 창고를 수리하라 하고는 불을 질렀으며, 우물을 파라 하고는 생매장을 하여 순을 죽이려 하였다. 그리고 상은 순을 죽이고 요임금이 내려주신 거문고와 두 형수를 가지려 하였다.
- 5) 순은 자신의 직분을 다하고 하늘을 부르며 호곡할 뿐, 자식의 도리를 다하여 효도하였고, 그리고 동생에게는 형의 도리를 다하였다.
- 6) 순이 제위에 오른 뒤 고수에게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그 태도가 공손하여 자식의 도리 그대로였다.
- 7) 순이 제위에 오른 뒤, 아들 상균은 인재가 되지 못하였으므로 하늘에 우를 천거하고 그 후 17년만에 세상을 떠났다.

이를 요약하면, '우순은 완악한 부친과 시기심 많은 이복동생에게 죽임을 당하려는 위기에 이르러도 하늘에 호곡할 뿐 자신의 직분을 다하여 제위에 올랐다. 그리고 자신의 제위를 아들 상균에게 물려주지 않고 어진 우에게 물려주었다'는 정도의 이야기가 될 것이다.

한편, 「유효공선행록」에 나타나는 부자 형제 관계를 단락을 지어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1) 유정경은 두 아들을 낳고 부인이 죽자 첩을 얻어 가사를 맡긴다.
- 2) 유정경은 관인 효우하고 올곧은 장자 연보다는 부친의 비위를 잘 맞추는 둘째 흥을 더 사랑한다.
- 3) 유흥은 형수의 미색을 탐하고, 뇌물을 받고 부친의 정사를 그르쳤으면서도, 타이르는 형을 모함하여 벌을 받게 하고 형을 죽이려 결심한다.
- 4) 유정경은 유연을 벌하며, 장자의 위를 폐하고 유연으로 장자를 삼는다.
- 5) 유연은 부친의 잘못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거짓 미친 체 한다.
- 6) 유흥은 부친을 부추켜 유연에게 과거를 보게 하고, 유연에게 황제의 잘못을 간하게 하는 상소를 올리게 하여 귀양가게 한다.
- 7) 그리고 유연이 귀양가는 도중에 관차를 매수하여 유연을 살해하려 하다 실패하자, 부친에게 형을 무고하여 부친으로 하여금 칼을 보내게 하여 유연의 자결을 강요하게 한다.
- 8) 유연은 유배지에서 어진 덕을 드러내어 백성과 사림의 추앙을 받으며, 태자에게 그 덕을 인정받고 돌아와 조정에 나오기를 간청 당한다. 그러나 부모와 동생의 잘못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출사하지 않다가 부모가 사면을 받자 출사한다.
- 9) 동생을 용서하고 높은 지위에 이르러서도 효도를 극진히 한다.
- 10) 장자 우성보다는 덕이 높은 유흥의 아들 백경을 계후로 받아들여 장자로 삼는다.

이상의 내용은 '유연은 시기심 많은 동생의 모해로 인해 판단력이 부족한 아버지에게 폐장 당하고 죽을 위기에 여러 번 직면하지만, 호곡할 뿐 부친을 원망하지 않고 효성을 다하여, 끝내는 다시 복장되고 만인의 사표로 추앙받는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보다 덕성이 뛰어난 동생의 아들을 계후로 받아들여 조상에 봉사하게 한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우순 효행담과 「유효공선행록」은 물론 구체적인 세부 내용에서는 서로 다른 별개 이야기이다. 그리고 모티프 차원에서도 상당히 차이를 보인다. 예컨대 유정경이 첩을 얻는다는 점과 고수가 후처를 얻었다는 점은 유사하지만, 유흥과 유연이 동복 형제인 데 반해, 우순과 상은 이복 형제라는 점, 고수의 후처는 완악하였던 데 반해 유연의 후처는 덕성스런 여

인이었다는 점 등 인물 사이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도 부분적으로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부자, 형제 사이의 갈등 양상, 그리고 장자의 지위 또는 제위의 계승 형식 등 핵심적인 구조에서는 서로 상동관계에 있는 이야기라 할 수 있다. 예컨대, 객관적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장자 유연을 폄박하면서 장자의 지위를 폐하고 아들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유정경의 성격, 부친의 총애를 차지하려고 형을 모해하여 사지에 빠뜨리는 한편, 형수의 미색을 탐내기도 하면서 형을 죽이려는 동생 유흥의 성격, 부친과 동생이 자신을 죽이려 함에도 불구하고 부모에 대한 효와 동생에 대한 사랑을 잃지 않는 주인공 유연의 행위, 그리고 뒤편이를 들어서 자신의 아들이 있음에도 동생의 아들 백경을 계후로 받아들여 장자로 삼는 유연의 행위 등은 우순 효행담의 핵심 골격과 거의 일치하는 것이다.

오히려 앞에서 살펴본 바 우순효행담과 「유효공선행록」에 나타나는 차이점은 「유효공선행록」에 설정된 주인공 유연의 대효를 극단적으로 강조하기 위해 작가가 의도적으로 부각시킨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예컨대, 우순과 상이 이복 형제인데 반해 유연과 유흥을 동복 형제로 설정한 점, 그리고 고수의 처가 완악한 여인인데 반해 유정경의 첩을 덕성스런 여인으로 설정한 점 등은 갈등의 초점이 이후의 가정소설들에 상투적으로 등장하는 처첩 사이의 갈등, 본처 소생과 후처 소생 사이의 갈등 등으로 옮겨질 가능성을 막기 위해 서술자가 일부러 우순 효행담의 구조를 변개함으로써 나타난 것이라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처럼 「유효공선행록」의 곳곳에서 주인공의 행위를 우순에게 견주는 한편, 기본적인 갈등 구조가 우순 효행담의 갈등구조와 유사하며, 우순효행담에서처럼 절대적인 효 이념을 표방한다는 것은, 작품의 서술 과정이나 작품 창작의 기본 구상 단계에서 작가가 우순 효행담을 염두에 두면서 창작을 하였기 때문이라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았을 때, 「유효공선행록」 창작의 일차적인 지향점은 유가 경전에서 표방하고 있는 절대적인 이념의 서사문학적 구현이라는 데 있었던 것이라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 3. 「유효공선행록」의 형상화 방식

#### 1) 「유효공선행록」의 서술시각과 갈등구조

「유효공선행록」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우선 효행담처럼 주인공 유연의 효라는 절대적 이념의 구현 과정을 서사화한 것이다. 서술자는 우선이 그러했듯이 유연이 절대적인 효를 구현함으로써 그것에 의해 현실세계의 갈등이 모두 해소되고 가문의 화목과 창달을 이루게 된 것으로 서술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유효공선행록」의 서사구조의 핵심 축은 주인공 유연과 부친 유정경 사이의 관계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유의할 것은 이러한 핵심 축만을 놓고 본다면 서사세계에 실제적인 의미에서의 갈등이 존재하지 않고 다만 주인공 유연이 절대적인 효 이념을 구현해 나가는 과정만이 존재한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갈등이라는 것은 행위 주체들 사이의 상호 관계에서 야기되는 것인데, 유연과 유정경의 관계는 일방적인 억압과 그것에 대한 무조건적인 인내 형태를 지니는 것으로서, 온전한 의미에서의 상호 관계가 아니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선행 연구들에 의해 거듭 지적되었듯이 「유효공선행록」에는 이 외에도 형제갈등, 부부갈등, 또 다른 부자갈등처럼 여러 형태의 갈등 관계가 중첩되어 나타난다. 장자 유연과 차자 유흥 사이의 형제갈등, 남편 유연과 부인 정씨 사이의 부부갈등, 그리고 아버지 유연과 아들 유우성 사이의 또 다른 부자갈등 등이 그것이다. 「유효공 선행록」의 기본 구조는 주인공 유연이 효의 이념을 구현해 나가는 형태를 지니지만, 그것이 형제갈등, 부부갈등, 또 다른 부자갈등을 통해서 구체화됨으로써, 유가 경전인 우선 효행담에서처럼 평면적인 이념 구현체로서의 모습을 넘어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효공선행록」의 해석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서술

7) 송성욱, 이승복, 임치균의 앞의 논문.

자가 전면에 내세우는 핵심 갈등구조와 그것을 구체화하는 과정에 등장하는 여타 갈등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유효공선행록」의 서술자는 절대적인 이념을 내세우고 그것의 구현을 통해 서사세계의 갈등이 모두 해소되는 것으로 그리려 함으로써 이념과 현실 사이의 관계를 단선적인 시각에서 파악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실제로는 이러한 이념의 구현이 이상적인 현실세계의 구현으로 곧바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모든 갈등의 해소와 가문의 창달이 유연의 효행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처럼 서술되지만, 구체적인 서사세계의 전개 과정을 보면 그것은 서술자의 관념에 의해 자의적으로 유도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오히려 유연의 효행이 부부갈등과 또 다른 부자갈등을 야기시키는 계기로 작용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어쨌든 「유효공선행록」에서는 서술자가 표면에 내세우고 있는 이념이 서술자의 의도와는 달리 작중에 전개되는 여러 층위의 갈등을 완전하게 해소시키지 못한다. 이는 서술자가 강하게 내세우는 명분론적 이념과 작품에 반영된 당대의 현실 사이에 괴리가 존재함을 뜻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유효공선행록」의 갈등구조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서술자가 표면에 내세우고 있는 이념과, 그것의 구현 과정에 나타나는 실제적인 갈등 사이의 관계를 보다 정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보면, 「유효공선행록」에 등장하는 갈등관계를 두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주어진 상황 속에서 유연이 이념을 구현해 나가면서 펼쳐지는 갈등 축이고, 둘째는 유연에 의해 야기된 상황 속에서 이념을 구현하려는 유연의 행위와 관련하여 펼쳐지는 갈등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전자는 유연이 고통을 겪으면서 그 고통을 이념을 통해 극복해 나가는 것이라면, 후자는 오히려 유연의 경화된 이념이 현실적 질서와 갈등을 일으켜 새로운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다. 전자가 유정경과 유연 그리고 유흥과 유연 사이의 갈등이라면, 후자는 유연과 정씨 부인 그리고 유연과 유우성 사이의 갈등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나누어봄으로써 서술자가 작품의 표면에 설정하고 있는 절대적인 이념의 양면성을 분석해 낼 수 있을 것이다.

## 2) 절대적 이념의 구현 양상

앞에서 이야기한대로 「유효공선행록」의 갈등 관계를 주인공 유연의 처지를 중심으로 해서 둘로 나누었을 때, 첫번째의 갈등에서는 부친 유정경과 차자 유희이 장자 유연을 일방적으로 모해하는 형태로 그려진다. 그리고 장자 유연은 부친과 아우가 어떠한 해를 가할지라도 그들을 적대자로 인식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효우라는 절대적인 대의 명분을 잃지 않을 것인가만을 생각한다. 그 결과 이러한 구조만을 따라서 읽다보면 주인공이 고통을 겪으면서 효라는 이념을 구현해 나가는 과정을 서술한 것으로만 읽혀진다.

예컨대, 주인공 유연은 부친의 잘못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문중 사람들 앞에서 미친 체하며, 부친과 동생을 원망하기보다는 자신으로 인하여 부친이 운상의 죄를 저지르게 되었음을 들어 죄인으로 자칭하고 죽으려 하지만, 오히려 자신의 죽음이 부친에게 누가 될까봐서 죽지도 못한다. 그리고 자신이 없어지기를 바라는 동생의 뜻을 따르려 하자 하여도 그럴 수 없는 상황을 안타까이 여겨 사람을 만나지 않고 하늘을 향하여 호곡할 따름이다.<sup>8)</sup> 그리고 동생의 계략으로 인해 유배를 가게 된 후 부친이 칼을 보내어 자결을 강요하는 것에 대해 피눈물을 흘리면서 하늘을 향해 울 따름이다.<sup>9)</sup>

이처럼 주인공 유연은 생사를 초월하여 효와 의리를 실현하려는 극단적

8) 인류이 문혀지므로 부터 민턴의 호읍하여 만시 부운 곳다니 었디 세상 스통으로 답 눈홀 뜻이 이서리오 스스로 일신 형사를 맞기고 누명을 붓그려 죽탄호되 스통이 굽 슈와 드르면 녀치 이십이어늘 나는 엄친과 득죄하여 죽식의 도를 다호지 못하여 눈상의 변을 이르혀 일신 누덕이 더인 말슴 가운데로 나서 우호로 조상 신령과 슈뵈 종족이 아홉이 되니 세상의 뉴런홀 녀네 이서리오만은 죽지 못하는 바는 더인이 참 쇼를 드르서 그 밍냥호를 아지 못호시고 차마 죽식으로 호여굽 이 지경의 니르시니 내 만일 원통호를 이괴지 못하여 죽은 즉 었디 부모 밍숨을 김혀 원망하미 아니리오 차라리 위를 아의게 도라 보너미 더션호지라 험의 입스되 아이 뜻이 마춤내 나의 사라시를 써리니 삭발기세하여 산중의 드러가는 능히 그 밍음을 푸지 못홀거시오 취관하여 당야움의 늬으나 능히 화목을 었디 못홀지라 다만 효대의 효를 기다릴 싹름이라.

9) 묵연 양구의 기리 탄키를 두어번 호미 눈물이 홀이 늦치 곱득하니 스통을 드러 벵슨죽 다 혈류라(전집 15권, 348면)

인 명분론적 태도를 드러낸다. 이는 주자가 『맹자 집주』에서 자신을 죽이려 한 부모를 원망하지 않고 하늘을 부르며 호읍한 우순의 효행담을 예로 들어 강조한 명분론적 효의 이념을 그대로 구현한 것이다.<sup>10)</sup> 이렇게 볼 때 이러한 갈등 축에 그려진 유연의 삶은 주자주의적 명분론에 입각한 절대적인 효 이념의 구현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서술자는 우순이 그러했듯이 주인공 또한 효의 이념을 구현하여 모든 갈등을 해소시킬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의 발생이 ‘어진 사람이 인륜의 온전함을 얻을 수 없는 운명적인 상황으로서 하늘의 뜻’에 따라 야기된 것이라고 인식한다.<sup>11)</sup> 그리고 그에 상응하여 주인공 유연은 부모에 대한 대효를 수행하는 것으로써 자신이 당하는 수난을 벗어날 뿐 아니라, 당대 선비로서의 사표적 자리를 누리게 되는 것으로 그려진다. 모든 갈등의 발생과 해소가 사회에 효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하늘의 뜻에 따라 필연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예컨대, 유연은 그의 인품으로써 정추밀을 비롯한 사람을 감동시켜 아비를 탄핵하는 상소문이 올라가지 않게 하고 아내 유씨를 얻는다. 그리고 부모의 강권에 의해 과거를 보아 합격했다가 “서모를 음증하고 가수를 스통하여” 폐장된 패륜아로 탄핵되지만, 평상시의 대효를 증명하는 여러 사람의 논의로 인해 위기에서 벗어난다. 한편, 부친의 꾀박에 못이겨 황제를 탄핵하는 상소를 올리지만 그의 인품에 감동된 태자의 진언으로 목숨을

10) “민천에 호읍했다는 것은 하늘을 부르며 운 것이니 이 사실은 우서 대우모편에 보인다. 怨慕는 자기가 어버이에게 사랑함을 얻지 못함을 원망하고 모한 것이다.”(號泣于旻天 號天而泣也 事見 虞書大禹謨篇 怨慕 怨己之不得其親而思慕也) “부모에게 호읍했다는 것은 또한 서경의 말이니 부모를 부르며 운 것을 말한다. 愴은 근심이 없는 모양이다. 於我何哉는 자신에게 무슨 죄가 있어서인지 알지 못하겠다고 자책한 것이니 부모를 원망한 것이 아니다” (于父母 亦壽辭 言呼父母而泣也 愴無愁之貌 於我何哉 自責不知己有何罪耳 非怨父母也)

11) “흔나흔 효우관인하고 흔나흔 간교암험하기를 주흔니 조연 외친너소흔미 되니 인 또한 어찌 던의 아니리오 뉴시랑이 검흔여 인물이 식흔호 일편되여 잔인흔 일이라 도 능히 홀 위인이라” (전집 15권, 6면)

“시랑이 초후 공즈 스랑이 전일과 너도 흔고 범스를 심이 의심 흔여 밋지 아니 흔니 공지 심히 두리고 슬허 몸을 조칙 흔고 가지 록 효우 흔를 힘쓰 더라 쥬야 야야 를 감동 코즈 흔 는 던쉬 발서 정흔 였고 뉴겨 크게 어즈러오라 흔 는 지라 엇지 능히 어진 스 름이 인륜의 온전 흔를 어드 리오”(전집 15권, 15면)

건지게 되며, 유배 도중에 죽을 고비를 겪지만 그의 인품에 감동된 강형수 등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진다. 그리고 유배지 조주에서는 인품의 교화가 나타나 '남녀 귀천이 직분을 잃는 바가 없고 군민 사대부의 추앙을 받아 명망이 가득하게' 된다. 이러한 명망 때문에 태자의 방문을 받으며, 우순의 효행담을 예로 들어 태자를 교화시키는 한편,<sup>12)</sup> 태자로 하여금 그가 우순과 같이 대효를 행한 인물임을 알게 하여 유배에서 벗어나 만인의 사표로 추앙을 받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우순이 효행을 통해 고난을 벗어나고 끝내는 제위에 이르는 것과 그대로 대응되는 것으로서 서술자의 이념이 서사적 형태로 구현된 것이다.

그런데, 시각을 달리해서 보면 서술자가 설정한 이러한 상황 및 그 상황의 해소 과정이 현실적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것임을 알 수 있다. 예컨대, 뇌물을 받은 자기의 죄가 탄로날까봐서 그리고 형에 대한 시기심 때문에 동생이 형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이나, 아버지가 "아름다운 일흠"은 자식에게 전하고 "시비"는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라는 걱정 때문에 자식을 죽이려는 계획을 연거퍼 꾸민다는 사실 등은 현실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극단적 행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주인공 유연이 자신을 죽이려는 의도를 알고 그들의 뜻에 따라 죽으려 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부친에게 누가 될까봐 죽지 않는다는 것 또한 현실적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는 극단적인 행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서술자가 작품의 표면에 설정한 효의 이념을 극대화하기 위해 주인공의 처지를 극단적인 상황으로 설정하면서 나타난 우의적인 사실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앞에서 살펴본 바 우순 효행담의 경우와 같은 것이다. 우순의 아버지로 설정된 고수와 상이 우순에게 창고를 고치라 하고 사다리를 치우고 불을 질러 죽이려 한 것이나, 우물을 파라 하고서 생매장을 하려 한 것은 우순의 효행을 극대화하기 위해 설정된 우의적인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완악한 성품이라는 추상적 이유만을 들어서 아버가 자식을, 그

12) 던히 대순을 었던 살롬이라 호시나잇가 텃지 왈 성인이라 었지 감이 시비호리오 흑식 주왈 순이 완혼 아버와 온혼 어미며 오혼 상으로써 증증예불격간혼 효조의 도리를 만고의 불히시고 쇼를 닛그려 밧를 같오시며 다만 하늘을 불너 올으실 썩롬이니 일즉 사롬을 향하여 던하의 말슴구론 일이 업순고로 후세의 귀히 여기느니라.(전집 15권 392면)

리고 동생이 형을 죽이려 한다는 것은 실제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이념의 극대화를 위해 설정된 가상적 상황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유연이 효행을 통해 부친의 억압에서 벗어나며 만인의 사표로 추앙받고 또한 조정의 부름을 받아 혁혁한 이름을 날리게 된다는 것도 실상은 절묘한 소설적 장치를 설치함으로써만 가능한 것이었다. 예컨대 부자갈등과 형제갈등 가운데 유연의 효행을 통해 해소되는 것은 부자갈등 뿐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도 유연의 감화와는 무관하게 유홍이 정치적으로 몰락하는 과정에서 저간의 사정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유연과 유정경의 갈등은 유홍 때문에 비롯된 것으로서 유정경이 유연을 핍박하는 것은 대부분 유홍의 유연에 대한 무고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유홍의 음모가 밝혀짐으로써 유연의 효행과는 관계 없이 갈등이 해소될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유홍과 유연 사이의 갈등도 유연의 감화에 의해 해소된 것은 아니다. 서술자는 유홍이라는 부정적 인물의 화신을 설정하여 유연의 비극적 상황을 창출하는 한편, 그러한 유홍을 제거함으로써 그와 같은 상황을 해소시키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또 하나의 우순효행담 구조를 절묘하게 중첩시켜 이러한 갈등 해소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예컨대, 유연이 아버지의 핍박에 못이겨 옹과하고 급제를 하며, 무고하게 탄핵을 당했다가 면책된 뒤, 태자는 유연의 글재주를 시험하기 위하여 “제순이 밧가르시던 뜻”을 묻는 글제를 낸다. 그러자 유연은 심중에 태자가 우순과 같은 액을 당하리라 생각하고 글을 지어 덕성을 드러낸다. 이로써 태자와 유연은 모두 우순과 같은 액을 당하는 인물로서 서로의 처지와 덕성을 절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sup>13)</sup>

그 뒤 만영·요정·유홍·유정경 등이 황제를 움직여 태자의 모친인 정궁을 폐하고 만귀비를 정궁에 봉하는 변란이 일어난다. 이에 유연은 아버지와 유홍의 관계 때문에 상소를 올리지 않고 있다가 자기를 죽이기 위해

13) 방금의 후궁이 성하고 정궁의 총이 쇠하시니 태자의 모지 기리 평안호실 중을 아지 못홀 비어늘 급일 이 글제 내 모음을 감오코주 흥미 도로혀 원참이 되어 타일 티직 반다시 대순의 익을 맞느리라(전집 15권, 171면)

상소 올리기를 강압하는 아버지의 명에 따라 천자의 행위를 비판하는 상소를 올리고 조주에 귀양을 가게 된다. 그 뒤 만귀비는 태자를 제거하기 위해 외방에 진찰하는 책무를 맡겨 책무를 다하지 못하면 태자의 위를 폐하라고 간하여, 태자가 조주를 순회하게 되고 결국 유연의 이름을 듣고 유연을 만나 유연의 인품을 접하게 된다. 그리고, 태자가 황제에 즉위하여 자신의 모친을 정궁에서 폐하려는 음모를 꾸민 요정·만염·유홍 일단을 처단하거나 귀양보내고 유연을 불러들임으로써 유연과 유홍의 갈등이 일단락되는 것이다.

유연의 효행이라는 이념을 매개로 하여 현실적 갈등을 해소시키기 힘들기 때문에, 또 하나의 우순 효행담 구조를 설정함으로써 정치적 차원에서 갈등을 해소시킨 것이다. 우순 효행담에서는 효행만으로써 갈등이 해소되지만, 「유효공선행록」의 서술자는 그러한 갈등 해소 방식이 관념적인 것임을 인식하기 때문에 갈등 해소의 매개적 장치로서 유연에게 가장 공감할 수 있으며, 정치적으로도 입장을 같이 하는 태자를 설정하여 정치적인 차원에서 갈등을 해소시킨 것이다.<sup>14)</sup>

앞에서 살펴본 바 「유효공선행록」에 등장하는 유연과 유정경, 그리고 유연과 유홍의 갈등은 유가 경전에 등장하는 우순 효행담의 서사 구조와 상동관계를 보이는 것이었다. 이는 그러한 갈등 관계가 사실을 재현하기보다는 주자학적 이념을 극대화하여 표현하려는 관념적 서술시각에 입각하여 서술된 것임을 뜻한다. 그런데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작품에 설정된 갈등 상황은 그러한 관념적 시각에 의해 해소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술자는 갈등 해소를 위해 또하나의 우순 효행담 구조를 지닌 소설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서술자가 표방하는 이념의 관념적 성격을 읽어낼 수 있는 것이다.

14) 우순 효행담에는 계모의 완악함으로 인해 우순이 고난을 겪는다는 모티프가 등장하는데 반해, 유연의 가문내적 갈등에서는 서모가 등장하면서도 서모가 도리를 아는 인물로 그려지고, 동복 형제 사이의 갈등이 부각되고 있다. 여기에는 유연의 효행을 극단적으로 강화시키려는 의도가 개입되어 있는 한편, 앞에서 살펴본 바 처첩 및 계모와 전실처 사이의 갈등 모티프는 태자와 만귀비 사이의 갈등 관계의 형상화에 이용함으로써 동일한 모티프의 반복을 통한 구성적 긴장의 이완을 막으려는 작가의 섬세한 구성 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3) 절대적 효 이념의 관념성과 그것의 역기능 양상

앞에서 살펴본 것은 유연이 일방적으로 수난을 겪으면서 효의 이념을 구현해 나가는 과정에 나타나는 갈등 관계였다. 여기서는 역으로 그러한 이념이 그의 부인이나 아들에게 강요되면서 나타나는 갈등 관계를 분석해 보기로 한다. 물론 이러한 갈등 관계는 표면적으로는 주인공 유연의 이념 지향적 태도를 정당화시켜주는 부차적 갈등 형태로 제시된다. 그러나 실제의 갈등의 전개 양상은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다.

이 가운데 먼저 부인 정씨와 유연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기로 한다.

「유효공선행록」에서 정씨와 유연 사이의 관계는 유연과 유정경 사이의 부자관계에 종속된 부차적인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그러면서도 이들 부부 사이의 갈등은 유연이 추구하는 명분론적인 이념이 얼마나 관념적인 것인가를 생생하게 드러내준다. 작품에서 서술자는 유연이 절대적인 효의 이념을 추구하는 것처럼, 부인 정씨 또한 부녀로서의 도리를 철저히 지키는 인물로 그린다. 그렇기 때문에 부인 정씨가 겪는 수난은 유연이 겪는 수난 이상으로 생생하게 느껴지며, 결과적으로 유연이 추구하는 명분론적 이념이 얼마나 관념적인 것인가를 생생하게 드러내주는 것이다.

작품의 앞부분에서 부인 정씨는 주로 유흥과 유정경에 의해 수난을 겪는다. 유연이 폐장된 후 정씨는 스스로 죄인으로 칭하고 계집종들처럼 천역을 맡아 행하며, 유흥에 의해 하영당에 감금되어 병이 들어 죽을 고비에 이르는 것이다. 이는 유연의 처이기 때문에 겪는 고난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고난은 정씨의 부덕이 얼마나 철저한가를 말해주는 기능을 한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초반부터도 유연의 이념 때문에 야기되는 갈등이 단초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예컨대 정숙한 인품을 지닌 정씨에 대하여 유연은 냉담한 태도를 보이며, 정부인이 유흥에 의해 하영당에 감금되어 병들어 죽게 되는 상황에서도 유연이 냉담하게 돌보지 않는 것이 그것이다. 이러한 유연의 태도는 부부 사이의 관계에서까지도 냉담함을 유지하는 것이 색을 탐하지 않는 군자의 모습이라 생각하는 서술자의 관념적 성윤리 의식이 투영된 것이라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념 시각의 투영에서 비롯된 이러한 유연의 냉담은 그 이후 증폭되어 폭압적인 상황까지 이르게 된다. 유흥의 말을 듣고 유정경이 하

영당에서 병들어 죽게 된 정씨를 ‘시부를 욕하고 받으면 강두의 무리를 출입하여 비복에게 들킴이 많다’고 하면서 혼서 봉채를 불시르고 정씨를 내쫓으라고 하자, 유연은 “임의 허실간 부형을 능욕하다 하고 엄뵈 니르시고 처즈를 다시 티지 못홀거시니 출하리 불의될 지언정 대인피 쫓을 일치 아니리라”고 하면서 부인의 병세를 살피지 않아 정씨가 거의 죽게 된다. 그리고 부친의 명을 받아 정씨를 수 십 장을 쳐서 거의 죽게 만든 후 친정으로 쫓아 보낸다.

이처럼 유연은 관념적인 명분의 추구를 위해 정상적인 부부 관계를 깨뜨리는 한편, 부인의 생명조차 희생시키려 한다. 이는 유연 스스로가 “불의”라고 하듯이, 서술자가 설정한 수직적인 명분론의 관념성을 극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관념성은 서술자가 정씨를 그러한 수직적 명분론을 철저히 받아들이는 인물로 그리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그다지 강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심지어 어쩔 수 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부녀자의 비극적 상황 짚으로 느껴지기도 한다.

대신 이러한 이념의 관념성은 부차적 인물인 정씨의 아버지 정추밀과 유연 사이의 갈등을 통해 구체화된다. 정추밀은 작품의 초두에는 사림의 영수격에 해당하는 정대한 인물로 그려진다. 그러던 정추밀이 이러한 딸의 정황을 보고는 딸이 비레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사실을 과장하여 유정경 부자를 논핵하려 드는 것으로 그린다. 그리고 명분론에 입각해서 본다면 절대로 용납하기 힘든 딸의 재혼을 추진한다.<sup>15)</sup> 그리하여 딸이 가출하여 도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창출한다.

서술자가 이처럼 정추밀의 성격을 극단적으로 변화시킨 이유는 유연의 효행을 정당한 것으로 유지시켜 애초에 의도했던대로 이야기를 대단원까지 끌고 가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다. 만일 이처럼 정추밀이 비레를 행하지 않았더라면, 유연 스스로가 “그릇된 부모의 명을 따라 행하려다 의를 잃은” 것이라 이야기하듯, 유연의 효행은 비인간적인 것일 뿐 아니라 부부간의 윤리를 파괴하는 비현실적인 것임을 드러낸 채 작품이 마무리 될 수

15) 분심을 품은 정상서는 유정경이 생모를 돌로 쳐 죽이고 부친의 창첩과 음란한 짓을 하여 인륜을 어지럽힌 인물이라고 탄핵하려다 비레임을 들어 단류하는 정씨의 말을 듣고 상소를 그만 둔다. 그리고 정씨의 재혼을 추진한다.

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피하기 위하여 서술자는 정추밀로 하여금 유연의 부친을 모해하게 하여 그를 유연과 원수의 관계에 서게 하고, 또한 정추밀로 하여금 정씨를 다른 곳에 재혼시키려 하게 함으로써, 유연이 옹서의 예를 파한다 할지라도 명분에 위배되지 않도록 상황을 설정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이제껏 관념적인 효를 내세워 부당하게 정씨를 억압했던 유연의 행위를 정당화한 것이다.

한편, 정추밀이 정씨를 재혼시키려 하지 않았더라면 정씨와 유연이 다시 결합하는 계기가 마련되기 힘들었을 것이며, 아들 우성이 태어날 수 있는 계기도 마련되지 않았을 것이다.<sup>16)</sup>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부자 갈등 형태를 마련하기도 힘들었을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효행을 통해 가문과 사회를 이상적인 형태로 교화시키는 유연의 당대의 사표로서의 형상을 그려낼 수 없었을 것이다.

이처럼 유연과 정씨 사이의 관계는 표면적으로는 명분론적 이념의 틀 안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려지지만, 실제적으로는 당착적인 것임을 보여주어 그것이 당대의 현실적인 삶과는 괴리된 관념적인 것임을 드러내고 있다.

한편, 유연이 내세우는 명분론적 효의 이러한 관념성은 아들 우성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드러난다.

작품에서 서술자는 유연과 우성 사이의 부자 갈등의 원인을 두가지로 설정하고 있다. 첫째는 우성이 정부인의 아들이라는 점을 들어 우성을 달갑게 여기지 않는 데서 갈등이 야기된 것으로 그리고 있다. 유정경의 명을 받아 데려온 우성을 보고 유연은 “정시의 죄 쾌히 용사치 못하나 츀아은 허아의 골육이니 머무러 부즈의 정을 니오미 원이라” 하면서 머무르라 하고 “심허의 흠이흠”이 무궁하다. 그런데 난항이 우성에게 돌아가기를 청하는 말을 듣고는 유연은 우성에게 모자의 인연을 끊든지 아니면 부자의 인연을 끊든지 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 명한다.<sup>17)</sup> 그러자 우성은 이러한

16) 정씨는 자신의 재혼을 추진하는 정상서의 뜻을 알고 남복을 하고 시비 난항과 함께 도망하여 떠돌아 다닌다. 그리고 조주 유배중에 우연히 병들어 죽게 된 정씨를 구하여 잠시 동안 부부의 정을 나눈다. 그러다가 정부인과 같이 있다는 말을 들은 부친이 자결을 강요하자 정씨는 수원암으로 가서 삭발하여 중이 된 뒤 아들 우성을 낳는다. 이로써 우성이 태어나게 되고 다시 일가가 재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부친의 매물찬 말을 듣고 두려워하면서도 모친을 변호하는 말을 한다. 그러자 그 뒤로는 우성이 아무리 정성을 다하여 부친을 모셔도 오히려 유연은 화를 내면서 우성을 꺾박한다. 이러한 꺾박은 유정경의 명에 따라 정부인이 유문에 돌아온 후에도 계속된다. 여기서 유연은 우성이 자신의 부친을 탄핵하려 한 정추밀의 딸 정부인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꺾박하는 것이다.

이러한 유연과 유우성의 관계는 서술자가 유연의 입장에서만 서술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상 우성의 입장에서 본다면 고수와 우순 사이의 관계처럼 하늘을 부르면서 호응할 수밖에 없는 비극적인 관계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자신은 불의한 경우에도 부모의 말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면서도, 자식에게는 부모 어느 하나와의 인연을 끊으라는 극단적인 불효를 강요하는 것이다. 이는 효를 통해 또 다른 효를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경직된 이념이 갖는 관념성을 역설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둘째는 우성이 '말이 너무 유창하고 영기가 너무 빼어나서 풍류의 속한 양이요 도학군자가 아니라'는 점 때문에 나타나는 갈등이다. 유연은 이러한 성격을 들어 안색을 엄정하게 하여 침묵으로써 우성을 가르친다. 한편 유연은 유정경의 명에 따라 12세에 우성을 이소저와 혼인시킨 뒤, 15세가 될 때까지 합방을 금한다. 그런데 우성은 이소저를 그리워하는 마음 때문에 부친 앞에서 이소저를 훑쳐보다가 부친으로부터 방탕한 자식 취급을 받는다. 그 뒤 우성은 창방연에 참석한 두 창기와 관계하게 되고, 또한 이소저와 강제로 관계를 가지려 하다가 발각되어 부친의 분노를 사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좀더 살펴볼 것은 유연이 우성을 꺾박하는 원천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점이다. 유연은 우성이 타락한 행태를 보이기 이전에 우성의 성품을 보고 미리 유흥의 아들을 계후로 맞아들여 장자로 삼는다. 그리고 이소저에게 눈길을 주는 우성을 보고는 "금일 빅경의 단중홍과 우성의 방조호씨 텃양이 가리여시니 엇지 불행치 아니며 빅경을 계후

17) 네 어미 죄 중하니 네 맞당이 빅어를 효측하고 다시 죄를 생각지 말나 만닐 조모의 정을 곳기 어업고 날 보기를 슬울진대 금일 도라가 어미를 위로하고 두 일을 갈히여 흥히더 어조리이 왕니홀 뜻을 두기 말나(16권, 76면)

“흐미 또 엇지 다헝치 아니리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행위가 정당했음을 확인한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백경을 계후로 맞아들인 이유가 우성의 성품 때문인 것처럼 설정되고 있지만 사실상의 이유는 다른 데 있음을 뜻한다. 연은 아들 우성이 원수처럼 여겨지는 정추밀의 외손이기 때문에 폐장한 것이다.

작품의 표면에 유연과 우성 사이의 갈등 요인으로 설정된 우성의 성품은 오히려 부차적인 것임을 뜻한다.<sup>18)</sup>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성격은 유연의 교화에 의해 사라지는 것으로 그려진다. 즉, 우성은 이후 부모의 교훈을 받들어 몸가짐을 엄정히 하여 지성으로 부모를 섬기는 것으로 그려진다. 이는 우성의 성격 때문에 나타나는 갈등이 일상적인 형태의 유가 가정에 나타날 수 있는 범상한 부자갈등에 속하는 것임을 뜻하는 것이다.<sup>19)</sup>

이렇게 볼 때, 서술자가 우성을 영기가 빼어나서 풍류 한량적인 성품을 지닌 것으로 그린 것은 우성과 유연 사이의 보다 심각한 갈등 관계에서 드러나는 유연의 태도를 정당화시켜주기 위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sup>20)</sup> 이는 유연이 정추밀 때문에 정씨부인을 용납하지 않다가 작품의 말미에는 그러한 원인이 제거되지 않았으면서도 정부인을 용납하며, 또한 우성까지 용납하는 것으로 그려지는 것을 통해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 유연이 명분론적 이념을 지키기 위해 가장장제적인 종속 관계에 있는 부인과 아들과의 갈등을 야기시키는 과정을 통해, 그

18) 「유효공」 선행록과 「유씨삼대록」이 동일 작자에 의해 지어진 것인지 아닌지는 「유씨삼대록」을 보다 면밀히 검토해서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동일 작자에 의해 지어졌든 그렇지 아니하든 「유씨삼대록」에 그려지는 우성의 형상을 본다면 「유효공선행록」이나 「유씨삼대록」의 작자가 「유효공선행록」에 유연과 유우성 사이의 갈등 원인으로 설정하고 있는 유우성의 성격이 원천적인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19) 유정경이 “즈식이 용열홀지라도 그 아비되는 지 허물을 감초미 울컹늘 이제 우성의 지화는 니르지 말고 빙헝이 과인호 최지 단목흐미 도혹의 군지라도 더오지 못홀거 시어든 미양 방탕조로 밀위여 나모라니 엇지 편벽되지 아니리오 빙경의 용출호를 사랑호여 헝여 우성이 먼저 등과호면 빙경이 더욱 괴운이 아닐가 막오미어니와” 이처럼 다른 시각에서 유성을 평하는 것을 통해서도 유연과 우성 사이의 주된 갈등의 원인이 첫째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 이를 우성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승복이 해석한 것처럼 부친의 자신에 대한 터무니 없는 폄박에 대한 일종의 반항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승복, 앞의 논문.

러한 명분론적 이념이 얼마나 비현실적이며 관념적인 것인가를 생생하게 읽어낼 수 있었다.

#### 4. 작품의 배경과 그것의 현실적 의미

앞에서는 작품에서 표방하고 있는 이념의 구현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그것의 관념적 성격을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작품에서 설정하고 있는 배경적 요소들의 현실성 문제를 검토함으로써 작품에 투영되어 나타나는 작가의식의 실체를 가늠해 보고자 한다.

『유효공선행록』의 서술자는 여러 층위의 갈등이 작중인물들의 성격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예컨대, 유연과 유정경, 또는 유연과 유흥 사이의 갈등을 관인 효우한 유연의 성격과 간교 암험한 유흥의 성격, 그리고 “시험하고 일편되어 잔인한 일이라도 능히 할 수 있는” 부친 유정경의 성격 때문이라 설명한다. 그리고 유연과 유성 사이의 갈등이 ‘엄정한 도학군자적 성격’과 ‘영기가 빼어난 풍류 한량적 성격’이라는 성격적 차이 때문에 비롯된 것으로 이해한다. 그리고 이러한 성격이 정치적 성향으로 이어져서 갈등을 가져오는 것으로 그려진다. 유흥은 재산과 사회적 지위를 탐내어 집안에서는 형과의 갈등을 일으키고,<sup>21)</sup> 밖으로는 권신 요정의 뇌물을 받고

21) “홍이 일장 티식왕 사군의 대효와 인주 후풍호른 내 본디 아는 빈오 형제 화목하며 봉친제가호른 인가의 경시라 비록 무식한 촌짜라도 알너는 호물며 나 뉴홍이 었디 아지 못하리오 다만 생각컨디 남의 세상의 나셔 군유를 압두호고 직학이 내 우회 오르리 업셔야 바야호로 남지되어 붓그럽지 아니리니 그러므로 네부터 유를 니고 양을 닦 단이 이시니 내 호문이 비록 강하 호하나 적연한 도학이 형만 못호고 그 말 단은 선비되어 열친 사군지도를 바드니 날 갖드니는 무용한 스톱이라 었디 즐겨 참을 비리오 그러므로 형을 업시호여 영빈의 우회 동러 잇단 말을 듯지 아니라 호나 니”(전집 15권, 63-4면)

“연의 위인이 동심홀 기리 업고 도로혀 일장 절척을 바드리라 호여 당초의 괴릴 만 호지 못호고 또 부친기 강심을 회호고 뇨정을 돕고셔 호나 연의 징논호미 이실 지라 온가지로 헤아리미 도로혀 뇨정을 위호여 골육 동기를 모함호니 이 정히 황금 슈뢰양이 뉴시 가문을 어즈리이고 부주 형제 불화호는 근본이 되어 맞춘너 인륜 디 변을 이르허니 슬프다 스톱이 욱심을 삼가지 아닐것가”(전집 15권, 10면)

부친의 정사를 그르치며, 과거에 급제하여 환로로 진출한 뒤 만염·요정 등과 결탁하여 정변을 일으킨다. 요정은 금오의 벼슬을 한 “조정 디신” “권문”으로 일컬어지는 사람이며, 만염은 만귀비의 인척이다. 이렇게 유흥은 환로를 택하여 수단을 가리지 않고 재물과 권력을 장악하려는 벌벌 세력으로 그려진다.

반면, 유연은 “세상 물욕이 없고 가친과 가계 뜻을 아는지라 즐겨 환로를 구호”지 않고 효우의 도를 수행한다. 그리고 유연이 관계를 맺는 사람은 정추밀·강형수·박형규 등 사람의 인물이다. 강형수는 “사람의 괴수”, “사류”, “고단한 스족”, “소빅 서싱” 등으로 일컬어지는 사람이고, 정추밀은 “언논이 이 시절의 최중호”여 “십삼도 어스”를 모아 유정경을 탄핵하는 “만언소”를 지어 올리려려 했던 인물이다. 그리고 박형규는 “청덕”을 갖춘 사람이다. 유연은 환로를 택하지 않고 도학을 연마하여 덕성을 기쁨으로써 도덕적 교화를 행하는 한편 그러한 도덕을 바탕으로 정소되어 조정에 참여하는 산림적 인물이다.

이처럼 「유효공선행록」에 그려지는 작중인물의 가문내적 갈등은 특권 벌벌층과 사림 사이의 정치적 갈등, 그리고 새롭게 대두되는 적장자 봉사제도를 둘러싼 가문내적 갈등이라는 정치 사회적 갈등과 결합되고 있다.<sup>22)</sup> 즉, 서술자는 산림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주인공 유연이 절대적 효이념을 구현하여 가문내적 갈등 및 가문외적 갈등을 해소시키고, 가문의 창달을 구현하게 함으로써, 벌벌 세력과 산림 세력 사이의 갈등을 산림적 시각에서 해소시키고 있다.

「유효공선행록」에 형상화된 이와 같은 갈등구조와 서술시각은, 잠깐 언급한 바 17세기 후반 이후의 유가적 윤리 이념을 강하게 드러내는 여러 가정·가문소설들과 함께 17세기 이후에 전개되는 정치 사회적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여러 가정·가문소설 연구자들에 의해 거듭 지적되었듯이 가정·가문 소설들에 등장하는 여러 형태의 갈등은 예송을 거쳐 환국의 상황으로 발전하면서 더욱 치열해진 정치적 갈등, 그리고 그러한 정치적 갈등에서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더욱 치열하게 벌이는 이념

22) 선행 연구들에서는 이러한 배경을 들어 이 작품을 산림의 작품, 또는 훈신 척족의 의식이 투영된 작품 등으로 이해하기도 하였다. 이승복, 송성욱, 앞의 논문 참조.

적 대립, 그리고 그와 관련되어 더욱 첨예해진 권력 분점 과정에 나타나는 가문 창달의식 등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작품에 형상화된 이러한 갈등 내용을 당대 상황의 직접적인 재현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인가는 좀더 신중하게 따져 보아야 할 것이다. 예컨대 「유효공선행록」에서 장자의 지위를 놓고 벌어지는 갈등을 선행 연구들에서처럼 당대의 현실의 직접적인 재현으로 해석하는 것과 같은 시각은 좀더 산중한 검토를 필요로 할 것이다.

선행 연구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조선시대 사회사 연구 보고에 의하면 유가의 종법사상이 일반인에게 보급된 것은 17세기 이후부터라고 한다. 17세기 이후부터는 균분 상속제에서 적장자 우대 상속 경향이 나타나고 18세기 중엽 이후 장남 우대 남녀 차별 상속을 하는 경향이 좀더 강화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한다. 그리고 제사 상속도 자녀윤회 봉사 제도에서 18세기 초부터 장자봉사 제도로 굳어지기 시작하였다고 한다.<sup>23)</sup> 작품에 등장하는 봉사권을 둘러싼 형제 갈등은 이처럼 새롭게 정착되어가는 상속제도 또는 봉사제도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sup>24)</sup>

그런데 이 보고에 따르면 상속의 경우 대체로 적장자에게 약 10% 정도를 우대하는 것이 일반적 관행이었다고 한다. 이러한 보고 내용을 기초로 하여 미루어볼 때 이 정도의 권리를 획득하기 위해 「유효공선행록」에 그려지고 있는 것처럼 형제나 자식을 살해할 정도의 갈등이 나타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작품에서 서술자도 이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우리집 당주는 예스 인가와 갯지 아나 계후의 집으로 선조 범영이 엄호시  
나 초지 당주의 옷술 남지 못하고 초뵈 통부의 조리를 갯지 못하거늘<sup>25)</sup>

이처럼 서술자가 유정경의 입을 빌어 이야기하듯, 작중 상황은 민간의 가정에서는 나타나기 힘든 소설적 상황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양대의 예술과 한국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왕가에서의 상속 문제는 사

23) 최재석, 한국가족제도사연구, (일지사, 1989), 551면

24) 송성욱도 앞의 논문에서도 이러한 관점에서 형제갈등을 해석하였다.

25) 필사본 고전소설전집 15권, 97면.

가에서와는 달리 치열한 권력 쟁투의 핵심 사항으로서, 혈족 관계를 초월하여 생사를 건 갈등이 야기될 수 있는 것이다. 위에 인용한 서술자의 이야기는 이와 같은 사정을 가장 극명하게 표현한 것이다. 서술자는 「유효공선행록」의 배경을 명나라의 성화 연간으로 설정하고 유씨 가문을 제후의 가문이라 하여, 당시의 조선에서는 왕가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가문내적 갈등의 극단적 양상을 정당화하려 한 것이다.

왕가에서나 상상할 수 있는 이러한 극단적 갈등이 사가에서 나타나는 양상을 왕위 상속을 둘러싼 갈등의 우의적 표현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유효공선행록」의 서술시각의 초점이 주인공 유연의 절대적 효 이념의 구현에 놓여 있는 것을 볼 때 그와 같은 해석은 무리라 생각한다. 그렇게 볼 때 「유효공선행록」에 나타나는 이와 같은 극단적 갈등 양상은 일단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17세기 이후 민간에서 강화되어가는 적장자 상속제도를 반영한 것이면서도, 현실 그대로를 재현한 것이 아니라, 왕위 계승을 둘러싸고 치열하게 벌어지는 형제, 부자 갈등 형식을 차용하여 그린 것이라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소설적 긴장을 확보하는 한편, 주인공이 구현하는 효 이념의 절대성을 극단적으로 강조하려 한 것이다.

한편, 같은 형제이면서도 산림적 특징을 보이는 유연과 벌벌층의 특징을 보이는 유연과 유흥의 계층적 성격에 대해서도 동일한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처럼 유연 및 유연과 어울리는 무리는 과거를 통해 권력의 핵심부에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덕행을 통해 사림의 추앙을 받아 권력의 핵심에 근접하는 사림, 또는 공론을 모아 만인소를 써서 정치현안에 대한 의견을 펼치는 사림 계층의 형상으로 그려진다. 반면 형제인 유흥과 유흥이 어울리는 무리들은 과거를 통해 권력의 핵심에 접근하는 한편, 왕의 외척세력과 결탁하여 권력을 독점하려는 특권 벌벌층의 형상으로 그려진다.

형제이면서도 이처럼 정치적 지향성이 다른 계층으로 그려진다는 사실은 그것이 현실 세계의 갈등을 그대로 재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다. 서술자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형제 사이의 이러한 사회 정치적 대립 관계를 그들의 성격 그리고 윤리의식의 차이 때문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형제간의 성격 및 윤리의식의 차이를 이처럼 사회 정치적 인 대립 관계와 연관시키는 것은 일찌기 李珣가 歐陽修, 朱子の 君子 小人論을 끌어와 군자당의 정당성과 소인당의 변별성을 내세워 붕당론을 전개한 이후, 당쟁이 격화되면서 명분론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대당을 소인당으로 몰아붙이던<sup>26)</sup> 당쟁의 형식을 형제 사이의 갈등 형식으로 변개하여 그린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한 가문 내에서 유연으로 대표되는 산림 또는 사림 계층과 유흥으로 대표되는 벌렬 계층 사이에 극단적인 정치적 갈등이 전개된다는 것은, 변화하는 18세기 이후의 정치 현실의 반영이라고는 하지만, 그것의 직접적인 재현 형태라 보기는 힘들 것이다. 이는 당대의 정치 현실을 가문 내적 갈등 형태로 변개하여 형상화함으로써 갈등의 실감을 증대시키는 한편, 서술자 자신의 정치적 지향성을 드러내려 한 것이라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처럼 서술자는 주인공 유연을 유가적 윤리 이념인 효의 구현을 통해서 가문 내의 갈등을 해소하게 하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게 하며, 또한 만인의 추앙을 받는 권력층에 편입하게 함으로써 가문의 창달을 이루게 하고 있다. 그런데 앞에서 살펴본 바 그와 같은 서술자의 의도는 부인 정씨와의 갈등, 아들 유우성과의 갈등, 유흥에 대한 교화 효과, 특권층으로의 편입 과정에 나타나는 구성적 무리 등을 통해 볼 때 극히 관념적인 것으로서 현실성이 결여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작품의 갈등 상황 및 결말이 당대의 현실을 재현한 것이 아니라, 작가의 이념을 그려낸 것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만일 유흥과 유정경을 산림과 벌렬층으로 설정하지 않았더라면 유연과 유흥의 갈등은 당대 현실세계에서 확장되어가던 적장자 상속 제도를 둘러싼 범상한 갈등 관계에 국한된 것으로 그려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와 같은 현실을 넘어서 이처럼 가문내적 갈등을 사회적 갈등으로 확장한 것은 작가가 주인공 유연의 형상을 통해 소설 향유층의 현실적 처지와 그것의 초월에 대한 이념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26) 정만조, "조선시대 붕당론의 전개와 그 성격," 이성무, 정만조의, 조선후기 당쟁의 종합적 검토, 정신문화연구원, 1994.

이렇게 볼 때 「유효공 선행록」에는 점차로 특권적 권력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사림층의 현실적 처지와 그러한 처지의 극복에 대한 관념적 이념이 투영된 것이라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17세기 이후 조선사회가 지향했던 주자학적 질서는 산림을 중심으로 정립된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주자학적 효 이념을 극대화하여 제시하려는 시각을 견지하는 「유효공선행록」의 주인공 유연이 산림의 모습을 지니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18세기 이후에는 산림의 역할이 급격히 감소되어 중앙 정계에서 정치적으로나 학문적으로 영향력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였다.<sup>27)</sup> 그리고 일부 사류는 중앙 정계와 유리되면서 영락의 길을 걷기도 하였다.<sup>28)</sup> 반면, 척족 벌렬들은 점차 세력을 강화하여 나감으로써 17세기 이전 산림 중심의 정국을 대체해 나갔다. 이처럼 18세기에 이르러서는 산림세력과 벌렬 척족 세력은 상반된 부침의 양상을 보이는 정치집단들이었다.

이처럼 당대의 현실세계에서는 주자학적 명분론과 사림이 점차로 영락해 가고 있었는데도, 소설에서는 명분론적 이념을 극대화하여 표출하는 한편, 산림을 매개로 하여 가문의 창달을 그리고 있는데, 서술자는 이를 통해 소설적 긴장감을 확보하는 한편, 영락해 가는 소설 향유층의 당위론적 소망을 표출한 것이라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 5. 결 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 「유효공 선행록」은 우선 효행담과 구조적 상동관계에 있는 작품으로, 주인공 유연의 효행을 통해 절대적인 명분론적 이념의 구현 과정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그런데, 이러한 이념의 구현과정이 합리적인 방식을 통해 구체화되지 못하고 서술자의 자의적인 개입을 통해 우

27) 유봉학, “18.9세기 노론학계와 산림.” (한신대 논문집 3, 1986).

28) 이우성, “한국 유교의 명분주의 및 그 정치적 기능에 관한 일 고찰- 이조후기의 산림에 대하여- 한국의 역사상, 창작과 비평사, 1980.

연적인 형태로 이루어진다. 그 결과 표면에 설정된 명분론적 이념과 작중에 나타나는 갈등구조가 정합적으로 결합되지 못함으로써 서술자가 표방하는 이념이 관념성을 강하게 드러낸다.

이는 명분 의리를 내세우면서 서원을 기반으로 지방 공론을 결집하여 중앙 정치에 반영시키면서 세도를 좌우하던 사림이 그러한 정치적 영향력을 잃고 쇠퇴의 길을 걷게 된 18세기 이후, 주자학적 명분론과 그것을 고수하던 사족집단의 현실적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주자학적 명분론은 17세기 이후 「소학」, 「동국속삼강행실」 등 교화적인 유가 전적류를 매개로 하여 광범위하게 전파됨으로써, 사족층의 생활 이념으로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다. 그렇기 때문에 사족층의 몰락 양상이 심하게 나타날 때는 사족층으로서 최소한도의 자부심을 견지하기 위해서라도 명분론적 생활 규범과 이념은 더욱 완강하게 지켜지는 경향을 보였다.

가문소설에 나타나는 관념적 이념으로서의 명분론은 대체로 이러한 소설 향유층의 처지와 이념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유효공 선행록」에서 상자의 지위를 빼앗기고 수난을 당하는 유연의 처지, 남편이 폐장 당하자 “밥먹고 잠조기를 능이 편이 못하여 흑 물도 길이며 쓸도 찼너 천역의 보너”는 처지에 이른 정부인의 처지 등은 일견 관념적으로는 사족층으로서의 자부심을 잃지 않고 명분론적 이념을 구현하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점차 영락해 가는 다수 사족층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